

영필이도 없고 스티슨도 없고...갈길 바쁜 KIA '악!...악!'



21일 오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최영필이 8회말을 마치고 덕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스티슨. <KIA 타이거즈 제공>

최영필 오른 손목 골절 '3주 진단'...사실상 시즌 아웃

스티슨 어깨 통증...감독 "시즌 막판이라도 돌아오길"



'호랑이 군단'이 험난한 5강 길에서 부상 가시밭길을 만났다.

KIA 김기태 감독은 2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술이나 먹고 속이 아픈 것 이면 낫겠다"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5강 싸움 속에 두 선수의 엔트리 탈락이 김 감독에게는 속이 쓰리도록 아팠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치열한 5강 접전 속에서 부상 악재가 겹치면서 이날 선발 투수와 필승조가 동시에 사라졌다.

KIA는 22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투수 스티슨과 최영필을 엔트리에서 탈락하고 신인 투수 이종석과 외야수 박준태를 등록시켰다. 투수 스티슨이 어깨 통증, 최영필이 오른팔 척골 미세 골절로 엔트리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난 1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1회 조기 강판된 뒤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스티슨은 당장 경기에 뛠 정도로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결국 엔트리에서 빠졌다. 스티슨의 경우 이미 주시하고 있던 부상이라 충격은 덜했다.

불편의 핵심 멤버로 5강 싸움을 이끌었던 '만형' 최영필의 부상은 갑작스러웠던 만큼 KIA에게도 타격이 크다.

21일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양현종에 이어 등판해 7회를 3자 범퇴로 막은 최영필은 8회 선두타자 김성현에게 좌중간 안타를 허용했지만, 김강민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 원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이명기의 직선 타구를 바로 잡아 스타트를 끊었던 주자까지 동시에 잡아내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지만 더블 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부상이 나왔다. 이명기의 타구에 오른팔을 맞은 최영필이 고통 속에서도 1루 송구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닝을 책임졌지만 정밀 검진 결과

손목 위쪽 부위 미세 골절 진단이 나왔다.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견. 앞으로 KIA에게는 10경기밖에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힌 김 감독은 남은 경기의 마운드 구상에 대해 "신인 이종석이 합류했다. 김병현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내일과 모레 유창식과 임기준이 선발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박정수와 홍건희 등도 있다. 스티슨이 시즌 마지막에 돌아와서 한 경기라도 던져주면 고마울 것이다. 올 시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었으니까 시즌 해왔던 것처럼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즌 막바지에 찾아온 갑작스런 부상으로 KIA의 2015 엔트리에는 57번째 선수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어렵게 꾸려온 KIA의 올 시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김주찬 다시 3번...선두로 치기엔 너무 아까워"

▲제 밑으로 오시겠네요. 잘 해드릴게요 프로에는 뒤늦게 들어왔지만 군대는 더 빨리 가게 된 '선입' 황대인이다. 고졸 루키 내야수 황대인이 22일 1군에 합류했다. 엔트리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1군에서 훈련을 하게 된 황대인은 올 시즌이 끝나면 군입대를 할 계획이다. 황대인은 군대 이야기가 나오자 "제 밑으로 오시겠네요. 잘 해드릴게요"라며 이흥구에게 장난을 쳤다. 내년 시즌이 끝난 뒤 군입대를 생각하고 있는 이흥구는 대졸 3년차. 군대에서는 황대인이 '선배'가 될 예정이다.

앞선 SK와의 두 경기에서 톱타자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김주찬이 3번으로 다시 이동을 했다. 라인업 변동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던 김기태 감독은 "선두로 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3번으로 넣었다. 1번은 신중일이 친다"고 언급했다. 김주찬은 톱타자로 나온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21일 경기에서는 홈런까지 날렸다. 타격감 좋은 김주찬을 해결사로 쓰기 위해 김 감독은 라인업에 변화를 줬다.

가장 안팎에서 베테랑 역할을 해왔던 최영필이 빠지면서 김광수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김광수의 각오는 간단했다. "말이 필요하나요? 일찍 나가 있으면 되죠. 늦게 들어오고." 김광수의 전략은 '술 선수'였다. 굳이 이래라저래라 할 것 없이 먼저 훈련을 시작하고, 늦게까지 하면 알아서 후배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김광수는 "앞선 SK전에서는 육성을 부렸다. 처음 팀에 왔을 때 마음으론 해야 했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는 마음이 달랐다. 남은 시즌 초심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일찍 나가 있으면 되죠 프로야구 최고참 최영필의 부상으로 투수 조 '만형' 자리를 물려받게 된 김광수. 경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두로 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손연재 "리우 올림픽 후회없이 준비할 것"

26~27일 잠실서 갈라쇼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22일 "내년 리우 올림픽은 저에게 두 번째 올림픽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인 만큼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26~2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메이퀸Q 리드믹 울스타즈 2015' 공연에 앞서 22일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연재는 지난 국제체조연맹(FIG) 2015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종합 11위를 기록하며 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러나 리우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았다.

손연재는 "대회 4일 내내 좋은 모습 보여 드려다 마지막날 그렇게 돼 좀 아쉬웠다"면서 "리우 올림픽은 또다른 무대다. 올림픽은 4년에 1번 열리는 만큼 모든 선수에게 의미가 클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잔 월드컵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마르가리타 마룬, 러시아의 신성 알렉산드라 솔다토바(이상 러시아)도 참석했다.

손연재는 "마룬은 세계적 기량을 선보이고 있고 야나 쿠드랴체바(러시아)와 다를 수준의 선수다. 여성스럽고 표현력이 많다"면서 "솔다토바는 1998년생으로 어리고 떠오르는 유망주다. 다음 올림픽 등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일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알렉산드라 솔다토바(왼쪽부터), 손연재, 마르가리타 마룬이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리듬체조 '메이퀸Q 리드믹울스타즈' 갈라쇼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룬은 역시 손연재에 대해 "표현력이 좋고 수준 높은 선수"라면서 "코치가 손연재는 모든 동작을 쉽게 한다고 말한다"고 평했고 솔다토바 역시 "손연재는 훌륭한 리듬체조 선수이자 좋은 라이벌"이라고 말했다.

마룬은 성적의 비결에 대해 "비결이라 할 건 없다. 그냥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고 훈련할 뿐"이라고 겸손함을 보였다. 이어 "이번 시즌은 만족스럽게 잘 마무리했다"면서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솔다토바는 "프로그램 준비가 늦어져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더 나

아진 모습을 보여드린 시즌이었다. 내년 시즌을 위해 음악도 고르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연재는 이번 갈라쇼에 대해 "리드믹 울스타즈가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리듬체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릴 기회가 돼 감사하다"면서 "이번 공연은 한가위에 진행되는 만큼 한국적인 분위기를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마룬, 솔다토바, 멜리타 스타니우타(벨라루스) 등과 함께 한국무용과 리듬체조가 어우러진 아리랑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룬의 후프, 솔다토바의 곤봉 연기도 예정되었다.

/연합뉴스



강정호, 부상자명단 올라...시즌 공식 마감

볼의 부상에 맞닥뜨린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공식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미국 ESPN은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가 강정호의 이름을 60일짜리 부상자명단(DL)에 올렸다고 22일 보도했다.

피츠버그는 빈자리를 트리플A의 외야수 유망주 키언 브룩스턴으로 채웠다. 강정호는 한국프로야구 출신 1호 메이저리거 야수다. 올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126경기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 60득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거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 유격수로 출전, 병살 상황을 처리하다가 왼무릎을 다쳐 수술대에 올랐고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킵스의 크리스 코글란이 2루 베이스가 아닌 강정호의 왼쪽 무릎을 겨냥해 슬라이딩했고 강정호는 왼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및 반월판 파열은 물론 정강이뼈까지 부러져 크게 다쳤다.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6~8개월 정도 재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콜로라도에 승리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4연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피츠버그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와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9-3으로 승리했다.

피츠버그는 1회에 기선을 제압했다.

스탈링 마르테와 아라미스 라미레스가 콜로라도 선발투수 조나단 그레이를 상대로 잇따라 솔로포를 터뜨렸다.

피츠버그는 2회에 조디 머서의 적시타로 1점을 달아낸 데 이어 4회에 다시 머서와 그레고리 폴링코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도망갔다.

콜로라도는 5회 1사 1, 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톰 머피가 피츠버그 선발투수 A. J. 버넷을 상대로 3점포를 쏴아 올려 5-3으로 쏘아갔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6회에 마르테의 적시타로 1점을 보냈고, 9회에 안타 4개와 상대 수비 실책으로 3점을 추가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르테와 머서는 이날 각각 5타수 4안타 2타점의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버넷은 5%이닝 6피안타 3실점(2자책)으로 시즌 9승(5패)째를 챙겼다.

피츠버그는 3연승을 달리며 90승 60패(승률 0.60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최미선 양궁 프레올림픽 개인전 금

최미선(광주여대)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앞서 열리는 양궁 테스트 이벤트 대회(프레올림픽)에서 여자개인전 금메달을 땀다.

최미선은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모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탄야팅(대만)을 세트점수 7-1로 완파했다.

최미선은 결승에서 12발 중 9발을 10점, 3발을 9점 과녁에 맞추면서 리우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연합뉴스

최미선은 "오늘 나의 퍼포먼스에 기쁘다"면서 "시작부터 페이스가 좋았다. 화살을 쏘는 데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는 8강전에서 탄야팅에게 숏오프 대결 끝에 5-6으로 무릎을 꿇었다. 기보배는 세트점수 5-5로 동점을 이룬 후 숏오프 대결에서 7점을 쏘 8점을 쏜 탄야팅에게 졌다.

/연합뉴스